

경남 고성서도 커피 열매 첫 수확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입력 : 2017.01.18 22:04:00 수정 : 2017.01.18 22:04:24

· 재배기술 농가 보급 계획

경남 고성에서 아열대 작물인 커피 열매가 수확됐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온난화대응미래농업관에서 커피 열매를 처음 수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12월 온난화대응미래농업관 2244㎡ 규모의 유리온실 1동에 커피나무 40그루를 심어 8.2kg의 커피 열매를 수확했다. 합천 등 일부 경남지역에서 체험용으로 커피나무를 키워 커피를 만든 곳은 있지만 농업 관련 기관에서 재배해 수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성군 농식품개발과는 고성에서 재배하고 직접 수확한 커피 열매를 농식품 개발을 위해 껍질을 벗겨 건조한 뒤 로스팅을 거쳐 기능성 커피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라 커피 열매 재배와 수확, 판매까지 상업화가 가능한지 연구해왔다. 군은 고성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고 면역기능성 커피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은 2012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커피농사를 짓기 시작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등 상업화를 꾀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